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공익성 추구

근로복지공단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최저 수준의 착한 수수료 운영 및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적립금 기준)

| 제도 | 운용관리 수수료 ¹⁾ | 자산관리수수료 | | |
|------------------|---------------------------|---------|---------------------------|------------|
| | | 기관 | 공익목적 사업장 ²⁾ | 일반사업장 |
| 확정기여형 (DC) | 0.1% | 우리은행 | 0.14% | 0.28% |
| | | 삼성화재 | | 0.28% |
| | | 교보생명 | | 0.20% |
| | | 미래에셋증권 | | 0.28% |
| | | 신한금융투자 | 0.20% | |
| 기업형 퇴직연금(IRP) | 0.1% | 우리은행 | 0.14%~0.15% | 0.28%~0.3% |
| | | 삼성화재 | 0.14% | 0.28% |
| 개인형 퇴직연금(IRP) | 0.1% | 우리은행 | | 0.20% |
| | | 삼성화재 | | 0.40% |
| | | 교보생명 | | 0.21% |

1) 운용관리수수료 장기계약할인(원리금보장상품 기준): 5~7차년도 10%, 8차년도 이후 20%수수료 할인

2) 공익목적 사업장: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산관리기관 〉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 SAMSUNG 삼성화재 KYOBO 교보생명

신한금융투자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에서

적립금 자산을 관리합니다.



1661-0075

<http://pension.kcomwel.or.kr>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을 검색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의
든든한 희망 파트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과
자산관리를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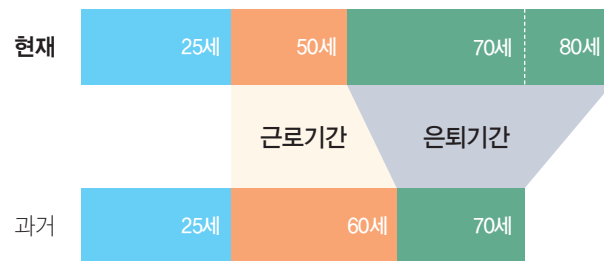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왜 필요한가요?

+ 길어지는 평균수명, **-** 짧아지는 근로기간



평균수명의 꾸준한 증가로 노후기간은 길어지고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으로 평균 근무기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 자금 준비를 위해서 퇴직연금은 필수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의 한계

퇴직금 수급권 보장 미흡

사외 적립의무가 없어 기업 도산 등으로 인한 퇴직금 채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기능 미흡

연봉제, 중간정산제 확산,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 소득원보다는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2012. 7. 26. 이후 신규 성립한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어떤 점이 좋은가요?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퇴직금 비용 예측 및 재무관리 용이
- 재무건전성 향상

경비처리 가능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DC형)

재무관리 용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을 나누어 적립하므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 관리가 용이합니다.
-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선택하여 적립이 가능합니다.

※ 예시
월 임금이 200만원인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게 되는 금액
200만원 x 1/12 = 166,670원

※수수료 별도

재무건전성 향상



부채비용 개선으로 재무 건전성이 향상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임금채권부담금의
최대 50% 감면
(별도 부담금 경감신청 필요)



-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 안정적 노후생활 자금 마련 계획
- 다양한 세제혜택

수급권 보장



퇴직급여가 사외에 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노후생활 자금 마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노후 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가능
-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IRP를 통한 계속 적립가능
-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교육을 통하여 금융지식 향상

가입자 부담금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7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소득세 부담 감소 [소득금액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

* 50세 이상인 경우(총 급여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제외)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IRP계좌를 통한 과세이연

퇴직소득 및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수령시까지 이연

연금수령 시 낮은 세 부담

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의 70%로 과세(30% 절감), 가입자부담금과 운용수익은 3.3%~5.5%로 과세 (일시금 수령시 16.5% 과세)

다양한 세제혜택

